

투데이 칼럼

안전한 여름나기, 소방서와 함께

신록의 계절 5월이 가고 여름의 초입인 6월을 맞았다. 올봄은 다행스럽게도 때때로 비가 내려 대형 산림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4일 기상청 발표 2021년 여름 날씨 전망에 따르면 6월과 7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여름은 6월부터 8월 16일까지 54일 동안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가장 긴 장마 기록을 남겼다. 전국 곳곳의 국지적 폭우로 인한 산사태, 급류, 침수피해로 31명의 사망자와 8,14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순창지역 또한 500mm가 넘는 집중폭우로 삼진강이 범람하고 유등면 외이마을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소방을 포함한 많은 기관·단체 및 분야별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수해의 아픔을 위로하였다.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에 앞서 집 주변 배수로 정비, 축대 보수, 날리기 쉬운 간판 등 내주변에 산재한 위험을 찾아 장마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

장마가 끝날 무렵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이 몰려온다. 기상청은 일 체감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이길원 순창소방서장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35℃ 이상 시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2020년 전라북도 폭염일수는 10.7일로 전국 평균 8.6일보다 2.1일이 길었고, 밤 최고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또한 전국 평균 8.2일보다 3.8일이 긴 12일로 다른 지역보다 폭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각종 온열질환을 발생케 하기 때문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경련으로 구분하며, 지속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온열환자는 전국 연평균 1,743.8명이고 사망자수는 평균 15.3명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와 노인, 약자,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집중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햇

볕이 내리쬐는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쉼이 넓은 모자와 헝겊한 옷을 착용해 햇볕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물을 찾아 강과 계곡, 바다로 물놀이를 떠난다. 하지만 시원하고 즐거워야 할 물놀이에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곳곳에 존재한다. 날카로운 바위, 깨진 유리병, 세찬 물살과 깊은 물 등이 그것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수심이 확인되지 않은 곳의 수영, 음주 후 물놀이는 금지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 보호자의 보호 아래 구명의를 착용해 익수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물놀이 준비물에 간단한 응급처치 약품과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혀 대비한다면 더욱 즐거운 물놀이가 될 것이다.

여름철 날씨의 대표적 특징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전염성 세균 확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식중독의 위험을 높인다. 여름철의 음식물은 더운 날씨로 훨씬 빨리 부패한다.

식중독의 80%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하며, 연평균 6,255명의 식중독 환자가 6월부터 8월 사이 발생하고 있다. 식중독의 증상은 메스꺼움·구토·설사·두통·열 등이다. 질병의 60%는 손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 손씻기, 음식물은 충분히 익히고 끓여먹기, 음식물용기에 장시간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여름을 맞고 있다. 순창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에 가까이 동참하는 성숙된 국민의식과 함께 집중호우, 폭염, 식중독 등 여름철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여름나기를 바라며, 순창소방서 전 직원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설

북한 경제 발전의 한계

북한 경제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유엔 제재를 비롯 코로나 수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 계획(1962~1967)을 통해 전연적인 기술 개혁과 문화 혁명,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련의 원조 중단과 군사비 증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침체를 겪기 시작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였다.

북한은 그 뒤에도 몇 차례의 경제 개혁을 통해 농업과 공업의 종합적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추구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경제와 지립경제 정책에 집착했다.

국방비 지출로 인한 투자 자본 부족, 에너지와 사회간접 시설의 부족도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었다.

북한은 1984년 외국과 경제 교

류를 늘리기 위해 합작회사 경영법(합영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경제적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 결국 1990년대부터 1998년까지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 뒤 북한은 1999년부터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건설 등 경제 분야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면서 계획경제를 고수했다. 중국, 베트남과 달리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경제난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현재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재기, 황금령 경제특구 건설,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도입을 통한 외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니고 있는 사회주의는 여전히 경제 발전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먼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전주 새천년소리예술단과 박경수 회장

코로나 시대에 음악으로 힐링을 전하는 연예인이 있다. 전주 새천년소리예술단의 박경수 가수 겸 회장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는 올해 80대 초반의 어르신이다. 그러나 여전히 젊음이 못지않게 노력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전주 '시민을 위한 공연'에 앞장서왔다. 새천년의 노래 봉사단을 이끄는 종합 문화예술인이다.

그는 전주 종남문 광장을 비롯 금양동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등에서 시민을 위한 공연을 열고 있다.

박경수 가수는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살아온 전문 연예인이다.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그가 무대에서 부르는 〈애수의 소아곡〉 그리고 〈청춘의 꿈〉은 변함없이 박수를 받는다.

박경수 난타 공연도 인기가 많다. 그는 현재 전주시내 완산구 경원동 3가 현무2길 18 공연장에서 장구를 이용한 난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 종남문 야외 광장에서 열린 전주 '시민을 위한 공연'은 인기몰이를 했다. 이날 공연은 새천년소리예술단이 주최하고 샘골문화예술단이 주관했다.

그리고 전주시 종남문 상인회와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북지부가 후원했다. 전주를 대표하는 가수들과 무명 가수들이 한 무대에서 실력을 선보였다. 관객들에게는 한껏 즐거움을 선사했다.

종남문 상인 회원들도 무대에 올랐다. 각자 장기를 선보이며 공연에 흥을 더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북지부 회원들이 따뜻한 커피와 동글레차를 마련하여 추위에 떠는 관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도 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새천년 소리예술단이 전주 시민을 위한 공연을 통해 전주 종남문 상인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한국전 참전 부친 묘비에 입 맞추는 미 여성



미국의 현충일(메모리얼 데이)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레이크 위스에 있는 사우스 플로리다 국립묘지에서 한 여성이 한국 전쟁 공군 참전 용사인 부친의 묘비에 입 맞추고 있다.

에버 기본호 사고 조사 발표하는 수에즈 운하청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SCA)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이집트 이스말리아에 있는 SCA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했던 에버 기본호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CA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일 동안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에버 기본호의 사고에 대해 선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